

【특 집】

최남선의 만주 체험과 「천산유기(千山遊記)」

崔一*

차례

- I. 서론
- II. 만주 체류 시기 최남선의 글쓰기
- III. 「천산유기」의 만주담론
- IV. 결론 : 최남선의 상상적인 ‘탈 경계’

국문초록

최남선은 만주에 4년 정도 체류하고 있으면서 ‘만주국’ 건국대학(建國大學) 교수로 일했다. 만주에 오기 오래 전부터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작가였지만 만주 체류 시기 최남선이 남긴 작품은 별로 없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만주국’ 체류 시기 최남선의 문학작품은 「천산유기(千山遊記)」 등 4편뿐이다. 「천산유기」는 그의 전집에도 수록되지 않아 뒤늦게 발견된 작품이다. 하지만 6800자 남짓한 이 기행문은 만주 체류 시기 최남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많지 않은 자료 중의 하나이다. 최남선은 조선 역사와 문화 연구의 수단 혹은 과정으로 국토순례와 해외기행을 중요시해 「심춘순례」, 「풍악유기」, 『백두산근참기』, 『송막연운록』 등 기행문을 다수 창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천산유기」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자료이다. 본 논문은 만주 체류 시기 최남선의 글들을 배경자료로 삼고 『송막연운록』 등 작품을 곁들여서 최남선의 만주체험과 「천산유기」에서 보이는 그의 만주 인식을 고찰해 보고자 했다.

주제어 : 최남선, 「천산유기」, 만주, 기행

I. 서론

‘재만조선인문학’의 정의는 아직 그 내연과 외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되어있지 않지만 대체로 1900년대 초를 시작으로 하여 광복 전까지 만주(滿洲) 즉 오늘날 중국의 ‘동북삼성(東北三省)’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조선인 이주민들의 문학이라고 범주화 시킬 수 있다.

1900년대 초 조선인의 만주 이주가 시작이 되어 1945년 광복까지 최대 200만 명 좌우의 조선인들이 만주에 이주하였다. 하지만 민담, 전설, 민요와 같은 구비문학이 아닌 작가, 작품, 독자, 발표 공간 등을 두루 갖춘 ‘재만조선인문학(在滿朝鮮人文學)’은 1920년대 말에야 시작되었다.

만주를 다녀가거나 만주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한국문인들의 수는 어림잡아도 150명¹⁾은 되지만 ‘재만조선인문학’의 규모는 정작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찾아볼 수 있는 ‘재만조선인문학’의 텍스트로는 『만선일보(滿鮮日報)』와 그 전신 『만몽일보(滿蒙日報)』 등 소수의 신문과 만주학회사(滿洲學海社)에서 출간한 사회·인문 종합도서 『반도사화(半島史話)와 낙토만주(樂土滿洲)』(1943년), 종합문예선집 『만주조선문예선(滿洲朝鮮文藝選)』²⁾ 등 두 권, 『씩트는 대지』, 안수길의 『북원(北原)』 등 소설집 두 권, 『만주시인집(滿洲詩人集)』, 『재만조선시인집(滿洲朝鮮詩人集)』 등 시집 두 권 밖에 없다.

만주의 조선인작가들이 만주와 만주문단을 대하는 태도, 만주에서의 체험과 글쓰기와의 내재적 관련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만주를 조선의 연장으로, 만주에서의 조선인 문학을 조선 문학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다. 일종 “몸은 만주, 마음은 조선”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강경애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만주에서 살면서 만주체험을 소재로 글

1) 중국 연변대학 교수를 지냈던 故 권철(權哲) 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만주’지역에 생활했던 한국문인들의 수는 137명이다. 여기에 상해, 북경 등 ‘만주’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했던 한국문인들을 더하면 그 수는 150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申瑩澈 編, 1941, 『滿洲朝鮮文藝選』, 朝鮮文藝社.

쓰기를 했지만 만주가 작품에서 가지는 의미는 작품의 배경이라는 의미 빼고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고 문학을 통하여 만주의 의미를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재만조선인문학’의 로컬리티를 긍정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재만조선인문학’과 조선문학의 관련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극력 그 독자적 의미를 강조했다. 안수길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북향정신’을 필두로 하여 만주와 조선인의 관계 그리고 만주의 의미 등을 문학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최남선의 만주체험은 위에서 말한 작가들과 많이 다른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최남선은 작가인 동시에 학자, 사회운동가이기도 했다. 최남선 역시 『만선일보』와의 인연으로 1938년 만주로 이주하였지만 이듬해 ‘만주국’ 건국대학(建國大學)의 교수로 초빙되어 1942년 11월까지 4년 넘게 체류했다. 건국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면서 「만몽문화론(滿蒙文化論)」을 비롯한 논문을 건국대학의 논문집에 발표를 했고 이 외 일부 글이 만주에서 출간한 단행본에 실렸다.

최남선은 만주에 4년 정도 체류하고 있었고 이미 문학가로도 명망이 높았지만 ‘재만조선인문학’에 남긴 작품은 별로 없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만주국’ 체류 시기 최남선의 문학작품은 수필 5편이 전부인 바 ‘만주국’의 유일한 조선어 일간지인 『만선일보』에 「청궁예화(淸宮藝華)」³⁾와 「사년(四年)만의 북경(北京)」⁴⁾ 등 두 편의 수필이 실렸고 『만주조선문예선』에 「사변과 교육」, 「백작재반일(百爵齋半日)」, 「독서」, 「천산유기(千山遊記)」 등 4편의 글이 실렸을 뿐이다. 특히 「천산유기」는 만주 체류 시기 최남선의 몇 편 되지 않는 문학작품 중 돋보이는 글이다.

최남선은 역사, 문화 연구의 수단으로 삼아 금강산, 지리산, 백두산 등 조선의 명산을 돌아보고 「풍악유기(楓岳遊記)」, 『금강예찬(金剛禮讚)」, 「심춘순례

3) 『滿鮮日報』 1940년 1월 1일 자 「부록」과 1월 4일 자 조간에 2회 연재.

4) 『滿鮮日報』 1941년 1월 1일 자.

(壽春巡禮), 『백두산근참기(白頭山觀參記)』 등 다수의 기행문을 남겼다. 「천산유기」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행문이 최남선의 글쓰기에서 가지는 특수한 의미 때문에 그의 금강산, 백두산 기행문은 적지 않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서영채의 일련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에 대하여」,⁵⁾ 「기원의 신화를 향해 가는 길 :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⁶⁾ 등이 있다.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에 대하여」에서 서영채는 근대관광이라는 시각에서 이광수의 「금강산유기」와 최남선의 「풍악유기」, 『금강예찬』을 비교하면서 이광수에게 있어 금강산이 “송고의 영역에서 미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진 분석의 대상이었던 데 반해, 최남선에게 있어 금강산은 “자연미를 송고의 차원으로 고양시키고, 이를 발원 삼아 조선정신이라는 신화적 실체에 접근해”가는 정신적인 대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기원의 신화를 향해 가는 길 :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에서 서영채는 최남선의 백두산 기행문은 “대자연의 송고를 민족의 신화로 인출”해 내고 “머나먼 고대사의 환상을 마음껏 그려”봄으로써 “거대하고 뜨거운 민족주의적 환상”을 표현한 텍스트라고 지적했다.

최근에 나온 연구로 홍순애의 「최남선 기행문의 문화민족주의와 제국협력 이데올로기」⁷⁾가 있다. 홍순애는 이 글에서 최남선의 문화론인 ‘만몽문화론’, ‘불함문화론’에 비추어 그의 장편기행문 『송망연운록』을 분석하면서 조선을 중심으로 하던 ‘불함문화론’의 논리가 만주, 만몽으로 변경됨으로써 제국주의 논리에 포섭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천산유기」는 6,800자 남짓한 짧은 편폭이고 그의 전집에도 수록되지 않아 2007년에야 발굴이 된 원인으로 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5) 서영채, 2004,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24호.

6) 서영채, 2005, 「기원의 신화를 향해 가는 길 :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 『한국근대문학연구』 12호.

7) 홍순애, 2016, 「최남선 기행문의 문화민족주의와 제국협력 이데올로기」 『한민족문화연구』 53권.

오양호, 윤윤진이 논문 「1940년대 중국 동북지구 한국문학작품 연구-수필 사회집 『만주조선문예선』을 중심으로」⁸⁾에서 『만주조선문예선』의 중요한 작품으로 최남선의 「천산유기」를 논하면서 “문학공간의 확대에 의해 한국인의 심상공간, 새로운 정신사의 한 축을 현실로 이끌어” 냈고 이런 의미에서 「천산유기」는 “한국인의 심상공간에 자리잡은 한국인의 산”이라고 지적했다.

「천산유기」를 직접 논한 논문으로는 문성환의 「최남선의 <천산유기>에 나타난 타자화의 논리」⁹⁾가 유일하다. 문성환은 이 논문에서 최남선의 「천산유기」는 그의 「백두산근참기」나 『송막연운록』에 비해 차별한 어조로 일관되어 있다고 하면서 천산에서 최남선은 조선의 현재를 발견·생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염두에 두면서 본고는 『송막연운록』 등 관련 작품을 곁들여서 「천산유기」에 보이는 최남선의 만주이미지-조선상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명성으로만 따지면 만주에 장기체류한 조선 문인 중의 거물은 단연 최남선이 아닐 수 없다. 계몽기문학에 끼친 영향을 보아도 그렇고 만주에 이주한 뒤 가지고 있었던 ‘만주국’ 건국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보아도 그렇다. 또한 만주 체류 시기의 최남선은 이미 뚜렷한 친일경향을 나타낸 뒤였는바 건국대학의 교수로 있는 동안 「만몽문화론」 등 일련의 연구논문을 통해 만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일제의 식민사관(植民史觀)과 일맥상통하는 견해를 발표했었다.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최남선의 문학작품에는 그의 역사연구, 문화 연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뚜렷한 친일적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물론 문학이라는 글쓰기가 갖고 있는 은회성(隱晦性)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만주를 대하는 최남선의 인식과 담론은 충분히 해석해 볼 가치가 있다.

8) 오양호·윤윤진, 2011, 「1940년대 중국 동북지구 한국문학작품 연구-수필 사회집 『만주조선문예선』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8호.

9) 문성환, 2009, 「최남선의 <천산유기>에 나타난 타자화의 논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2집.

II. 만주 체류 시기 최남선의 글쓰기

‘재만조선인문학’에 남긴 최남선의 글쓰기 흔적은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반도사회와 낙토만주』에 실린 논문 6편과 『만선일보』에 실린 수필 2편 그리고 『재만조선문예선』에 실린 정론 1편과 수필 3편으로 모두 10편이다.

『반도사회와 낙토만주』는 1942년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하여 신경만주학해사(滿洲學海社)에서 출간한 대형 앤솔로지로서 ‘만주국’ 국무총리 장경혜(張景惠)가 표지글씨를 써주고 이동치호(伊東致昊, 즉 尹致昊), 청원범익(淸原範益, 즉 李範益, ‘만주국’ 간도성 초대 성장), 유진오(兪鎭午), 청목일부(靑木一夫, 즉 朴八陽) 등이 서문을 썼고 전임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일본제국 총리대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일본 관동군 사령관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만주국’ 국무총리 장경혜(張景惠), 괴뢰 남경정부 주석 왕정위(汪精衛) 등이 쓴 5편의 기념사 및 이병희(李丙熹), 이병기(李炳岐), 이광수, 최남선, 안확(安廓), 현상윤(玄相允) 등의 글 126편이 실렸다.

『반도사회와 낙토만주』에 실린 최남선의 글로는 「기자(箕子)는 지나의 기자가 아니다」, 「만주약사(滿洲略史)」, 「간도(間島)와 조선인」, 「조선과 세계의 공통어」, 「만주의 명칭」, 「몽고(蒙古)의 명의(名義)」 등 6편이 있는데 모두 논문에 가까운 글들이다.

『만주조선문예선』은 필사 등사본으로 된 소형 앤솔로지로서 현경준, 최남선, 신영철, 안수길, 염상섭, 김조규, 박팔양 등 15명의 저자가 쓴 20편의 작품과 14편의 고시조가 실렸다. 최남선의 글 4편 중 「사변과 교육」은 정론(政論)이고 나머지 세 편은 수필이다. 또한 이 세 편의 글은 최남선이 만주 시절 창작한 글로 후일 그의 전집에도 실리지 않았다.

「사변과 교육」은 1939년 『삼천리』에 발표했던 「전쟁과 교육」이란 글을 제목만 바꿔 다시 실은 것이다. 이 글에서 최남선은 ‘지나사변’이 중국인들에게 있어서의 교육적 가치를 논하고 있다. “支那는 世界에서도 比類가 업

는 老大國인 同時에 四億이 넘는다는 그 國民은 그 歷史와 文化를 자랑하기에 頑冥執拗하여 尋常한 方法으로는 그네를 近代生活의 此岸으로 濟度해 낸다는 수가 업게 생긴 群衆이다”¹⁰⁾라고 주장하면서 ‘지나사변’은 우매하고 완고한 중국인들을 깨우치는 채찍으로 “눈물에 축인 사랑의 채찍 살에 쓰러리기는 하겠지마는 그 長夜의 昏夢을 깨침에는 이것이 도리혀 親切이오 至情임이 毋論이다. 매란 것은 따리기에도 힘드지만는 귀여운 子弟를 가르치려 하매 수고를 도라보지 안는 것이다”¹¹⁾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최남선이 만주로 이주한 뒤 첫 번째 글로 그 기본적인 논지는 1930년대 이후 점차 노골화 된 최남선의 친일논지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독서」는 최남선이 자신의 독서철학을 밝힌 글로 “讀書는 아모것이든지 方便이 아니다. 그냥 讀書 그것으로가 우리의 一大生活事實인 것이다. 이러하니 할 것이오 그러치 못하면 말 것이 아니라 이러튼 저러튼 讀書해야 하기를 着衣喫飯과 가치 할 것이다. 讀書가 업시는 내가 배급호며 내가 몸 으스스함을 어찌 하지 못하나니 讀書는 곳 내 生活에서 빠지 못할 一大要素임을 양탈할 수 잇스랴.”¹²⁾라고 하면서 자신만의 독서철학을 밝힌 짤막한 소품문이다.

「백작재반일」은 최남선이 ‘만주국’의 명사(名士) 나진옥(羅振玉)의 사택인 ‘백작재(百齋齋)’ 방문기이다. 나진옥(1866~1940)은 청조 말기~‘만주국’ 시기 상당한 활약을 했던 문신인 동시에 중국근대 농학(農學)의 개척자이고 돈황(敦煌) 연구와 금석문 연구에서도 상당한 조예를 가졌던 고고학자였지만 지극히 보수적인 인물로 끝까지 청조의 말대(末代) 황제인 부의(溥儀)를 추종하였다. 그는 ‘만주국’의 성립되어 부의가 ‘집정(執政)’에 오르는 의식에서 부의를 대신하여 답사를 하였고 그 뒤 ‘만주국’ 감찰원장, 참의부 참의, ‘만일 문화협회(滿日文化協會)’의 회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최남선은 이 글에서 대

10) 최남선, 1941, 「事變과 教育」 『滿洲朝鮮文藝選』, 朝鮮文藝社, 78쪽.

11) 최남선, 1941, 같은 글.

12) 최남선, 1941, 「讀書」 『滿洲朝鮮文藝選』, 朝鮮文藝社, 20쪽.

련(大連)에 있는 나진옥의 사택 ‘백작재’를 방문하여 주인이 자랑하는 고서화, 고문화재 등을 관람하고 마침 그곳에 와있던 청조의 예부시랑(禮部侍郎)과 ‘만주국’ 내무처장 등을 역임했던 문신 애신각라·보희(愛新覺羅·寶熙, 1871년~1942년)와 함께 나진옥이 소장하고 있던 이제현(李齊賢)의 글, 김수온(金守溫)의 이력 등을 담론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 나진옥과 보희는 청조 말엽의 대표적인 보수파 문인으로 중화민국이 성립되고 청조가 멸망하여 말대 황제 부의가 황궁에서 쫓겨날 때 황실을 위임을 받아 사후문제를 처리한 5인 대표에 포함되어있었다. 이들은 최남선의 말을 빌면 “天下의 兩土요 滿洲의 一雙國老”¹³⁾로 ‘만주국’의 요직에 있었던 명사들로 이 글은 만주 체류 시기 최남선의 교우관계를 엿볼 수 있다.

「천산유기」는 최남선이 신경에서 기차로 안산까지, 다시 버스로 천산 입구까지 이동하여 요동(遼東)의 명산인 천산의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을 유람하고 적은 기행문이다. 대부분 짤막한 소품문인 『만주조선문예선』에서 「천산유기」는 7,000자 가까운 편폭이고 문인기행문의 정석대로 경관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관련된 풍성한 역사, 지리학적인 지식을 결합한 문체이다. 따라서 이 글은 만주 체류 시기 최남선의 글쓰기에서 돋보이는 작품인 동시에 함석창(咸錫彰)의 「길림영춘기(吉林迎春記)」와 더불어 『만주조선문예선』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성을 갖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천산유기」의 만주담론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조선에서 단순한 이국 혹은 이역이 아닌 만주로의 여행은 타자의 발견보다는 자아의 발견이라는 의미가 강했고 나아가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일종 ‘세속적인 성지순례’¹⁴⁾라고

13) 최남선, 1941, 「白爵齋半日」, 『滿洲朝鮮文藝選』, 朝鮮文藝社, 35~36쪽.

14) 본尼迪克特·安德森(Benedict Anderson), 吳叡人 譯, 2005, 『想象的共同体：民族主義的起源与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인들의 만주기행문은 만주라는 보편적이고 지리적인 공간(space)에 자기의 가치관과 인식에 근거한 의미를 부여하여 자기만의 장소(place)로 재구성하는 일종 ‘장소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인문지리학은 실증주의 지리학에서 간과하는 인간과 지리적 공간의 풍부한 내적 관련에 주목한다. 이-푸 투안(Yi-Fu Tuan)은 『공간과 장소』에서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¹⁵⁾고 주장하면서 공간(space)과 장소(place)를 구분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공간은 인간의 주체적 경험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적인 공간이고 장소는 그러한 공간에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여 인식하는 인문적인 공간인 것이다.

또한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pla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장소의 정체성’이란 장소와 장소경험의 주체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 그는 또 장소, 장소의 정체성, 장소감을 구분하여 ① 장소는 반드시 그 장소를 경험하는 인간을 내포하고 있고 ② 장소의 정체성은 장소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장소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며 장소를 중심에 둔 표현이고 ③ 장소감 역시 인간과 장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장소를 어떻게 자각하고 경험하고 의미화 하는가를 말한다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공동체와 장소 사이의 관계는 사실 매우 밀접해서 공동체가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이 관계 속에서 경관은 공통된 믿음과 가치의 표출이자, 개인 상호간의 관계맺음의 표현이다.”¹⁶⁾

최남선의 만주기행문은 식민지조선과 복잡한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관련을 갖고 있는 만주에 최남선만의 의미를 부여하여 완성된 일종 ‘장소서사’인 것이다. 최남선의 첫 해외기행문인 『송막연운록(松漠烟雲錄)』은 바로

散布』, 上海人民出版社, 53쪽.

15)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2007, 『공간과 장소』, 대운, 19쪽.

16) 에드워드 렐프, 김택현 외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86쪽.

만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만주라는 장소에서 고구려, 발해와 같은 잃어버린 역사와 수전, 조선 이주민 등 ‘조선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데 열중하고 있다.

「천산유기」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遼東의 景勝을 말하는 이가 먼저 千山을 들른 누구나 그 實을 가리지 못함이다. 曆日의 봄이 느껴가되 등허리가 그냥 으스스함을 견디다 못하여 南枝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四月 二十七日 夜의 南行列車에 내뿜을 실려노 했다. 新京 떠날 때의 찬비가 어디서부턴 개였는지 아침 六時 奉天에서 잠을 깨었을 제는 다만 朝陽에 驕慢한 槐柳의 新綠이 자는 눈에 새 정신을 썩워 줄 뿐이었다. 그리하고 南으로 나리가는 一步는 그대로 春意増上의 一段이오 또 그냥 綠陰深濃의 一夜이랄가. 밋 白塔이 가음이는 遼陽으로부터서는 大地가 暖陽의 미테 네 활개를 편 分明한 初夏의 氣分임에 놀라지 안치 못하얏다.”¹⁷⁾

‘만주국’ 건국대학의 유일한 조선인 교수였던 최남선이 천산을 보기 위해 쌀쌀한 4월의 신경(新京)에서 기차를 타고 남하했을 때의 심경은 「백작재반일」에서 초겨울의 신경에서 남쪽의 대련(大連)에 도착했을 때의 그것과 비슷하게 따뜻하고 만족스럽다.

최남선의 천산 기행은 1941년 4월 27일 이뤄졌다. 『송막연운록』을 지었던 1937년 가을, 최남선은 만주지역을 돌아보면서 요양(遼陽), 안산(鞍山)에 들렀지만 지척에 있는 천산을 그냥 지나쳤다. 당시 최남선은 안산에서 바라본 천산의 모습을 두고 “기이하고 수려한 모습이 우쩍 기세를 더하여, 줄줄이 늘어선 산악이 툭니처럼 솟아있다. 그 중 한 봉우리가 흡사 말안장 같은 모습을 띠고 있으니, 물을 것도 없이 안산(鞍山)임을 알겠다. 산모양이 마치 안양(安養) 뜰에서 보는 관악산 연봉(連峰)과 비슷하다.”¹⁸⁾라고 쓰고 있다. 만

17) 최남선, 1941, 「千山遊記」 『滿洲朝鮮文藝選』, 朝鮮文藝社, 41쪽. 본고의 이하 「千山遊記」의 원문 인용은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18) 최남선, 2013, 「송막연운록」, 경인문화사, 329쪽.

주에서 조선적인 것들을 찾아내려 했던 최남선의 일관적인 시각이 보이고 있다.

「천산유기」 또한 천산의 초입부터 ‘조선적’인 것을 보고 느끼는 감동에서 시작하고 있다.

“싸호면서 沙河村 魏家屯等部落을 지내고 七嶺子에 다다라서는 山도 가
 잡고 松林도 드문드문 잇고 花崗石 부스러진 모래바닥으로 흐르는 개울이
 滿洲에서는 희한하달 만큼 맑기도 하여 滿目風物이 죄다 朝鮮的임에 말할
 수 업는 반가운 情이 난다.”(42쪽)

만주의 산이라면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 숲, 맑은 개울만 보고도 “만목풍월이 조선적”이라고 감개무량했던 최남선은 천산을 보는 내내 조선을 떠올리고 있다. ‘팔보진(八步緊)’이란 경물을 보면서 “鉅高한 巖壁이 기운 차게 하늘을 치바치고 발거리 될 만한 一線을 차저서 登七八을 타고 鐵欄을 배푸러 올려서 억지로 向上의 一路를 通하기를 맞치 北漢山의 白雲臺”(44쪽)와 같다고 했고 ‘협편석(夾扁石)’이라는 경물을 보면서 “登이 다하면 몸을 뒤쳐서 岩石의 갈라진 틈으로 드러가서 一便을 지고 一便을 안고 미죽 미죽 橫行하여 한참만에 간신히 빠져나가서 말하자면 北漢의 ‘안돌이’, ‘지돌이’를 한데 가져다가 부쳤다 할 곳”(44쪽)이라고 쓰고 있으며 천산의 거치형(鋸齒形) 산세를 두고 “거기 花崗巖의 風化를 말미암는 怪石美가 잇고 鬱蒼한 松林風籟音이 잇고 長谷과 淸溪가 잇고 蘭若와 塔姿가 잇서 風景構成의 要素가 꼭 우리의 故土와 틀림이 업다. 그래서 生面이 아니라 旧識과 같기로 웨 그런고하고 싫혀보니 여기까지의 洞壑은 마치 逍遙山의 入口와 비슷하고 이우에서 내려다보는 谿谷은 흡사히 小藏山의 碧蓮庵前面과 같다. 滿洲에서 朝鮮山川의 風韻을 맛보기를 吉林의 松花江에서 한번하고 東寧의 萬鹿溝에서 두번 하얏섯지마는 이제 千山에서 가치 錦繡江山 그대로를 對해보기는 일즉이 經驗도 업고 또 이뒤에 거듭하기를 괴필치 못한 뜻하다.”(45~46쪽)고 쓰고 있다.

최남선이 천산에서 조선을 소환하는 방식은 자연경관의 유사성에서 유발된 상상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선 山 全体가 長白山의 未脈이 바다를 건너서 泰山을 만들라가는 過野임이다. 遼東半島란 원래 朝鮮半島와 매한가지로 역시 白頭山의 한 기슭인 것이다.”(46쪽)

천산이 백두산의 지맥이라는 지리담론은 요동반도가 조선반도의 한 기슭이라는 인문지리학적인 담론으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서 “歷史를 말할 것 가트면 千山의 左右가 古朝鮮의 主要한 地域으로서 高句麗、渤海의 歷代에 언제든지 根本部的 意味를 가졌든 郡縣地이얏으니 이들에게는 先民의 어루만진 자리가 있고 이 흙에는 先民의 흘린 땀이 심어잇슬 것이”(46쪽)고 “無量觀境 內에 康熙十四年 建立 <重修觀音閣羅漢洞姓名碑記>가 잇서 그 中에 ‘千山天地之鍾秀 三韓之巨觀’이란 句가 있고 咨堂의 扁額에도 ‘三韓丁鶴年書’를 署한 것이 잇스니 이러케 千山을 三韓地 視함이 진실로 偶然한 일이라 할 수 업다”(46~47쪽)고 하면서 최남선은 천산일대에 “잃어버린 고토”라는 ‘장소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최남선은 근대 이후 천산일대의 개발 또한 조선인들이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득한 넷일 썬일가. 近代의 滿洲封禁期에 千山을 踏遍하야 그 拳石撮土로 하야금 항상 現實界와 因緣을 가지게 한 者는 鴨綠江 方面으로부터 山蓼을 케러 다니는 우리의 ‘심피선’들이얏다 하니 말하자면 千山의 開發은 朝鮮人으로 더부러 서로 終始하얏다 할 것이다.”(46~47쪽)

결론적으로 최남선의 만주담론은 만주와 조선의 밀접한 지정학적 연관성에 대한 강조에 지나지 않는바 이른바 ‘북방문화’의 개념을 상정하여 만주 문화를 중국문화에서 분리하려고 했던 그의 문화연구의 시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천산유기」를 쓸 때 쯤 최남선은 이미 일제의 식민주의담론에 경도되어 있었고 「만몽문화론」 등을 통해 ‘만주국’ 건국의 문화적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만선일여(滿鮮一如)’, ‘오족협화(五族協和)’, ‘팔굉일우(八紘一隅)’ 등 만주에서 일제의 식민담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이제 千山의 一峰頂에 서서 흠뻑 滿洲를 이러버리고 슬며시 故土의 생각을 품음을 누가 구태 닷할 者이나.”(47쪽)라고 하면서 만주에서 조선을 상상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은 최남선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겠다.

IV. 결론 : 최남선의 상상적인 ‘탈 경계’

만주를 대할 때 고조선, 고구려 등 역사담론을 통한 상상적인 영토 확장 은 만주기행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高麗門이라는 것은 옛날 使臣들이 通關하던 곳입니다. 高句麗以前으로 말하면 滿洲一幅이 다 우리 民族의 版圖니까 말할 것도 없지마는 高麗以後로 漸漸 줄어들기를 一千年을 해 오는 동안은 이 땅은 마름내 漢族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瀋陽이라면 丙子胡亂에 三學士가 淸太宗에게 갖은 勸誘와 惡刑을 받고 도 끝끝내 降服하지아니하다가 칼끝에 忠義의 熱血을 뿌리고 죽은 곳입니다. 만일 吾族이 다시 이곳을 차지할 날이 온다고 하면 맨 처음 할 일은 三學士의 忠魂碑、忠魂塔을 세우는 것이겠습니다.”

상기 두 단락의 인용문은 이광수가 「만주에서」¹⁹⁾라는 제목의 기행문에서 따온 글귀이다. 민족지도자에서 친일로의 전향이라는 정신적 궤적을 같이 하는 이광수와 최남선 두 사람의 만주담론 또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주 경내에 진입하는 순간 이광수는 조선의 민족적 절개의 화신이라고

19) 『동아일보』 1933년 8월 9일 ~23일 연재.

할 수 있는 ‘삼학사’를 떠올리고 고구려를 떠올려 만주는 잃어버린 고토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일제 식민지배 하의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만주담론은 가히 일종 환유(metonymy)라고 할 수 있는바 역사를 빌어 현재를 연술하거나 역사담론으로 현실담론을 치환하는 일종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담론이 때론 ‘향수(鄉愁)’와도 같아 옛날에 대한 무기력하고 감상적인 기억이 되어 현실에 대한 회피 내지는 퇴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남선의 경우가 가히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최남선은 일찍 1920년대 『불함문화론』에서 조선, 일본, 중국 지어는 유럽까지 아우르는 문화적 영토인 ‘불함문화’를 주창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상상적인 경계로 현실적 경계를 지우는 ‘탈 경계’를 시도하였다. 이때까지는 적어도 일제의 식민지라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탈 영토화’ 내지는 ‘재 영토화’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면 만주 체류 시기 최남선의 만주담론은 철저하게 일제의 식민주의담론에 포섭되어버렸던 것이다. 「간도와 조선인」이란 글에서 최남선은 간도 이주의 역사, 청과 조선의 간도국경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조선인의 간도진출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듯 하다 결국에는 “滿洲는 五族協和의 王道樂土의 새 出發을 하여 慈□(관독불가필자)과 恩露가 무른 朝鮮民族의 쉬이 普及均等하고 있나니 이 新天地에 今後 朝鮮人의 發展은 眞실로 測量하지 못할 것이 있게 되었다”²⁰⁾라는 허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최남선과 같은 상상적인 ‘탈 경계’는 한국 근대문학의 만주담론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다. 안수길의 ‘북향(北鄉)’의식 역시 “만주는 일찍 우리의 고토(故土)였다”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 등 초월적인 시각에서 만주에 접근했던 최남선에 비해 안수길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실존적인 문제에 입각하여 만주라는 공간은 생존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의 장소로 파악하면서 떠나온 고국을 돌아보지 않고 만주에서 새로운 기

20) 최남선, 1942, 「間島와 朝鮮人」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滿洲學海社, 145쪽.

원이 되고자 하는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주의담론을 비껴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희박하게나마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최남선의 만주담론은 역사담론을 주요한 언술수단으로 삼았던 신채호와도 비교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망국멸족의 위기 앞에 신채호는 역사담론을 통한 애국·독립의식의 고양에 주력하였는바 일제의 만주침략의 본질을 밝히면서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나서 만주를 침탈하고 “남으로 중국을 도모하고 북으로 시베리아를 침범해서 하루에 만리를 개척하는 칭기스칸의 패도를 이루려”²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만주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이 “국수를 보존”하고 “정치능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²²⁾ 중국으로 망명한 신채호 역시 민족사 연구를 목적으로 만주의 고구려유적을 답사했다. 신채호는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측량과 약도를 그렸는바 그것은 역사현장의 확인이라는 실증적 차원의 만주담론으로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확정하여 상상적인 ‘탈 경계’가 아닌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확립하는 과정에 자아로서의 주체성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최남선은 「천산유기」에서 만주라는 공간을 통해 조선적인 이미지를 소환하는 데 그치고 있는바 그 논리도 역사학, 고고학, 문화학 등을 동원한 『송막연운록』에 비해 단순하다. 이는 물론 짧은 스케치 정도의 「천산유기」의 장르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른바 학문적인 태도를 거뒀낸 보다 단순한 심상으로서 최남선의 만주담론이 갖고 있는 허구성이 오히려 자명해 진다.

21) 신채호, 1921, 「조선의 독립과 동양평화」, 『천고』, 제1권.

22) 신채호, 1910, 「만주문제에 취(就)하여 재론함」, 『대한매일신보』 1월 19일~22일 자.

참고문헌

- 平山瑩澈(舊 申瑩澈) 編, 1942,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新京: 滿鮮學海社
- 申瑩澈 編, 1941, 『滿洲朝鮮文藝選』, 新京: 朝鮮文藝社
- 최남선, 2013, 『송막연운록』, 경인문화사
- 에드워드 렐프(Relph, E. C, 1983), 김덕현 외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이-푸 투안(Yi-Fu Tuan, 1977), 구동희 · 심승희 역, 2007, 『공간과 장소』, 대운
- 本尼迪克特·安德森(Benedict Anderson, 1991), 吳叡人 譯, 2005, 『想象的共同体 : 民族主義의起源与散布』,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문성환, 2009, 「최남선의 <천산유기>에 나타난 타자화의 논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2집
- 서영채, 2004,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24호
- 서영채, 2005, 「기원의 신화를 향해 가는 길 :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 『한국근대문학연구』 12호
- 오양호 · 윤윤진, 2011, 「1940년대 중국 동북지구 한국문학작품 연구—수필 사회집 『만주조선문예선』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8호
- 홍순애, 2016, 「최남선 기행문의 문화민족주의와 제국협력 이데올로기」 『한민족문화연구』 53권

투고일 : 2016년 5월 3일, 심사완료일 : 2016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6년 6월 16일

■ Abstract ■

A Research of Choi Nam-seon's "Travels of Chen Shan"

Cui, Yi (Yanbian University)

Choi Nam-seon spent four years in Manchukuo (滿洲國). He served as a professor at the Jianguo University (建國大學) in Manchukuo. Choi Nam-seon was a very influential writer and scholar in Korea, but had few publications during his stay in Manchukuo. According to available information, Choi Nam-seon only published "Travels to Chen Shan" (千山遊記) and three other articles during that period. Because "Travels of Chen Shan" was discovered in 2007, it is not present in "The Complete Works of Choi Nam-seon," however it still has its place in Choi Nam-seon's travels. Choi Nam-seon took field survey and overseas travel as important means of conducting his research. As one part of his research, "Travels of Chen Shan" also had important academic value. This paper will take "Song Mak Yeon Woon Rok (松漠燕雲錄)" and other travel notes as the reference to study Choi Nam-seon's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Manchu.

Key words : Choi Nam-seon, "Travels of Chen Shan(千山遊記)", Manchuria, Travels